

현대건설, PDVSA 정유설비 공사 수주

현대건설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(PDVSA)로부터 1조5776억원(미화 13억4800만달러) 규모의 푸에르토나 크루주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개선 공사에 대한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6월14일 밝혔다.

공사기간은 약 4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.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14>